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느 날 당신이 부르시면

-최 옥-

나
서두르지도 더디지도 않는
그런 걸음으로
당신께 갈 수 있기를

그 어두운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눈을
깜박거리 주셨는지

내 손에 있는 것
내 맘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살며시 내려놓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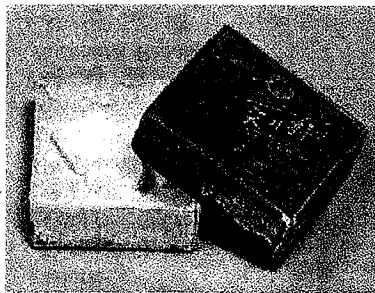
날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당신의 얼굴을
흐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당신이
눈부신 태양일거라고
파아란 하늘일거라고
생각했지요

사랑하는 당신을
눈앞에 두고서도
먼 데 한눈을 팔며 외면했던 나

하지만 당신은
밤하늘에 가장 작은 별이었고
금방 쏟아질 것 같은
비구름이었습니다

어느날 당신께서 부르시면
서두르지도 더디지도 않는
그런 걸음 가질 수 있기를
나, 간절히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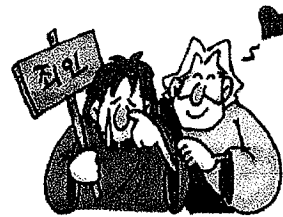
◀그면 그랬지▶ 박가분(朴家粉)을 아시나요?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아흐레 나을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 별도 서러운 방물장사 되라하네..."

- 신경진의 목계장터 중에서-
한때는 동동구리무와 더불어 여성 화장품의
대명사였습니다. 머리카락 팔아 모은 싹짓
돈으로 박가분 한통을 어렵게 사시던 어머
니...이제는 그 박가분도 없고 박가분을 사
시고 좋아 하시던 어머니도 안계십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가정, 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5권 32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8월 10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진짜 의인



알렉산더 대왕이 노예선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끌려와서 쇠사슬에 묶여 노를 젓는
비참한 노예선 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왕에게
"저는 죄가 없어요. 억울하게 끌려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억울함과 죄 없는 것을 변
명하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말이 없었습니다.

"자네는 왜 말이 없나?"

하고 묻는 왕에게,

"예, 저는 여기서 고생을 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의인들속에 이
죄인을 함께 있도록 하느냐? 어서 돌려보내라."

엄마가 딸에게
네가 다니는 학교에 공지를 가져라
자기의 것을
자기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소중히 여기지않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인이 운전하는 차를
뒤따르지 마라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정차한다
그러나 절대 비난하지는 마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47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2 (시편 32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510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교섭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8:1-11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믿음시리즈(5) "사람 대접하는 믿음, 사람 대접받는 믿음"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87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을 더욱 굳세라' (1절:안주집사, 장로 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8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3	최재학	유성희	권사회	유병민, 윤희권
10	김교섭	이근평	장로, 안수집사	이근평, 이재운
17	김순자	이금선	권오걸, 허미숙	정관영, 정종일
24	김종건	이기중	권용일, 이지영	조용건, 최득수
31	김영길	이재운	학생부교사	최원영, 최재학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인도네시아로 귀국, 박양숙 성도(지수). 아름답게 신앙생활 시작하셨던 모습이 인도네시아에서 더욱 풍성해 지기를 기도드립니다.
-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우리들을 위해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여성 교우들의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큰 기도의 힘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제목을 담당자 혹은 구역장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시> 11일(월) 오후 1시, 교회
- 출애굽기 성경공부. 수요일예배를 통해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꿀 보다 더 달다"는 의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시> 매주 수요일 저녁 7:30, 교회
- 탁구실 설치 운영: 2분의 성도께서 탁구대를 빌려주셔서 Hall 지하에 탁구대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먼지청소, Painting이 필요합니다. 시간내셔서 봉사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탁구실을 담당관리해 주실 성도의 자원봉사를 기다립니다.
*라켓(16개): Garage Sale 과 Secondhand Shop에서 사용할 만한 탁구라켓을 보시면 구입후 재정부에 비용청구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 "영화클럽": <제목> 7인의 신부. Tea Time을 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Musical입니다

◀착한 시인들▶ 늙지 마시라 - 오영재 -

늙지 마시라. 늙지 마시라
더 늙지 마시라 어머니여
세월이 가지 말라
통일되어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라도
...
너 기어이 가야만 한다면
어머니 앞으로 흐르는 세월을
나에게 다오.
내 어머니 뒤편까지
한 해에 두살씩 먹으리
검은빛 한오리 없이
내 백발 서둘러 온데도

북한의 계관시인의 사모곡이 더 가슴을 에입니다. 어머니는 이념도 주의도 아닌데, 그저 쭉그렁 가슴에라도 얼굴을 묻고 땀을 맡고픈 영원한 사랑일 뿐인데. 남북으로 편을 짜 살아온 모자지만 사랑만큼은 손타지 않은 50년의 세월.
실오라기 희망을 이어놓으면 언젠가 통일의 줄기로 엮어지길 기대했던 한 부자의 죽음, 통일을 위해 아직도 한 가장의 목숨이 필요 했다면 그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는 유가족의 원망섞인 울부짖음을 듣는 듯 했습니다